

전남 정신재활시설 단 3곳... 원정진료 고통

순천1·영광2곳... 최하위 수준 광주 8곳·대전 30곳과 큰 차이 주민 반대 등 확대 어려움도

■ 광주·전남 정신장애인 수

광주 2952명 전남 5725명

〈2016년 기준·국가통계포털〉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사회복귀에 도움을 주는 정신재활시설이 전남에는 단 3곳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17개 시·도 중 2곳뿐인 울산과 세종에 이어 최하위권 수준이다. 광주의 정신재활시설은 8곳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의 지자체 수는 22개지만 정신재활시설은 순천 1곳, 영광 2곳 등 총 3곳뿐이다. 이 때문에 정신장애인들은 정신재활시설이 몰려있는 수도권 등 타지역으로 원정진료를 받으러 가야하는 실정이다.

27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 등록된 정신장애인 10만여명 중 광주·전남의 정신장애인은 2952명, 전남은 5725명으로 광주·전남 지역이 8.7%인 총 8677명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의 정신장애인의 수는 약 38.9%인 3만8924명인데 비해 비수도권의 정신장애인의 수는 61.1%인 6만1145명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재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에 등록된 305곳의 정신재활시설현황 살펴보면 수도권인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53.1% 수준인 162곳이 몰려있어 수도권 편중이 심했다.

광주와 전남의 경우 정신장애인 수가 비슷한 타시도와 비교해봤을 때 정신재활시설의 수는 현저히 부족한 상태로 조사됐다. 광주에는 8곳의 정신재활시설이 갖춰져 있으며 정신장애인은 2952명으로 나타났다. 정신장애인은 3003명인 대전과 비슷했다. 하지만, 광주의 정신재활시설은 8곳에 불과해 30곳인 대전과 비교해 볼 때 차이가 컸다.

또 전남의 정신장애인은 5725명으로 전북 5454명, 충남 5214명으로 비슷했

만 정신재활시설은 3곳으로 전북 14곳, 충남 22곳 등에 비해 현저히 낮을 수 있다.

영광의 정신재활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사회복지사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시설은 입소 16명, 이용 20명 등 총 36명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면서 “정원이 가득 차 있어 치료를 받지 못하고 타지역에 있는 재활시설을 찾아가는 경우도 꽤 있다”고 말했다.

전남도 장애인 재활시설 담당은 “장애인보호시설은 지방이양사업으로 운영돼 도차원에서 먼저 유치할 수는 없다”면서 “시·군에서 먼저 나설 경우 도비를 지원해 줄 수는 있지만 주민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많아 꺼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현영기자 young@kwangju.co.kr

농성2동-건강관리협회

매월 취약계층 5명 무료검진

광주시 서구 농성2동 주민센터가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와 공동으로 취약계층 주민들을 위한 건강검진지원사업을 펼친다.

27일 서구에 따르면 농성2동 주민센터와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는 지난 26일 협약을 체결하고 농성2동에 거주하는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을 매월 5명씩 무료 건강검진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앞으로 농성2동 주민센터는 매월 5명씩 무료건강검진 대상을 발굴해 추천하게 되며,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는 무료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농성2동 차미영 동장은 “이번 무료건강검진 지원사업이 동네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는 지난해부터 집안 형편이 곤란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김현영기자 young@kwangju.co.kr



광주 서구 농성 2동 주민센터와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는 지난 26일 광주시 서구 농성동 한국건강관리협회의 회의실에서 협약식을 개최했다. <광주시 서구 제공>

오늘 광주 남구 ‘사랑의 교복 나눔장터’

광주시 남구가 새학기를 맞아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8년 사랑의 교복 나눔장터’를 연다.

27일 남구에 따르면 28일 오전 10시부터 남구청 8층 대회의실에서 사랑의 교복 나눔장터가 열린다. 남구지역 중·고등학교의 교복이 판매된다. 남구노인복지관의 협조를 받아 세탁한 교복은 최저 1000원에서 3000원에 판매된다. 사랑의 교복 나눔 장터에서 판매하는 교복은 총 19개교이다.

교복 판매 수익금은 전액 남구장학회에

기부돼 어려운 여건에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 장학금으로 지급된다.

행사장 주변에서는 주민과 구청 공무원이 기부한 각종 의류 및 생활용품 등도 저렴한 가격에 판매된다. 남구 지역자활센터 및 이마트 봉선점에서도 천연 비누 및 손뜨개 수세미 등 생활품을 구입할 수 있다.

이마트 봉선점도 판매 수익금을 남구장학회에 기부할 예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사랑의 교복 나눔장터를 계기로 나눔문화가 더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영기자 young@

“아토피 어릴 때 잡아야” 서구 보습제 지원

광주시 서구는 “아토피피부염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해 아토피피부염을 앓고 있는 아이들에게 보습제를 매월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아토피피부염은 소아·청소년기에 적절히 관리하지 않으면 성인기에 중증 아토피피부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서구는 아토피피부염으로 진단 받아 치료 및 관리가 필요한 아동들에게 매월 보습제를 지원하고 관리할 계획이다.

대상은 서구 내 만18세 이하 기초생활수

급자, 차상위 계층, 다문화·한부모 가정, 3자녀 이상 가구, 장애아동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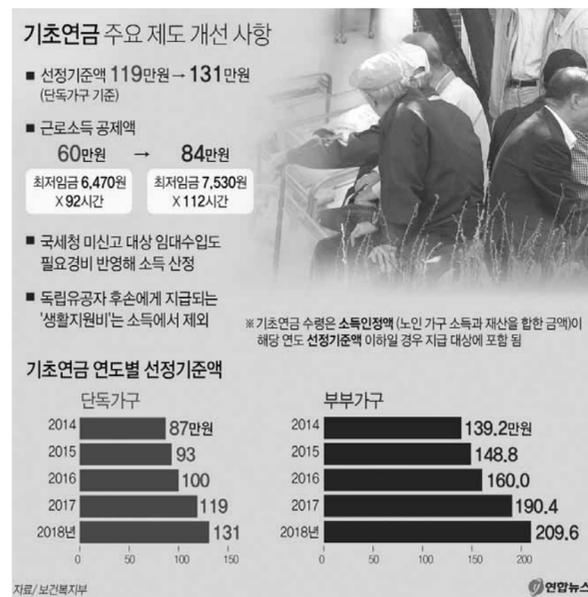
보습제를 지원받으려면 부모가 아이의 아토피피부염 진단서 및 소견서를 첨부하여 서구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아토피보습제 지원을 희망하거나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구보건소 건강증진팀(062-350-4133)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구청 관계자는 “보습제 지원과 함께 아토피피부염 환아에 대한 올바른 피부관리 교육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현영기자 young@kwangju.co.kr

기초연금 9월부터 최대 25만원 오른다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월 131만원으로 인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오는 9월 최대 25만원까지 인상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기초연금법 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단독가구 기준연금액 기준 최대 20만6050원(부부가구 33만5920원)인 기초연금은 오는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1.9%)을 반영해 20만9960원(부부가구 33만5920원)으로 인상한 뒤 9월에는 최대 25만원(부부 40만원)까지 오른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 가까운 국민

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의 합산)이 2018년도 선정기준액(단독가구 월 131만원, 부부가구 월 209만6000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기초연금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오는 9월부터 500여만명 넘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최대 25만원까지 인상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기초연금의 인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최대 30만원까지 늘려나갈 예정이다.

김현영기자 young@kwangju.co.kr

“엄마 힐링하고 울게” 직장맘 행복 교실

광주 북구, 참여단체 접수

광주시 북구가 “직장맘 고통 해소를 위한 ‘직장맘 행복 교실’ 사업을 진행할 단체를 공모한다”고 27일 밝혔다.

“직장맘 행복교실”은 직장생활과 출산·육아를 병행하는 직장맘들에게 힐링과 자기계발 시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북구는 그림책을 읽고 아이랑 함께 소통하는 리딩보드놀이, 초등생 감성그림책 힐링교실 등 ‘직장맘을 위한 행복스쿨’과 함께 위킹맘 힐링캠프 등을 진행했다.

북구는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

고 1차 서류심사, 2차 전문가 심사를 통해 사업의 적합성, 주민참여 및 수행능력,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해 다음달 중 1~3개 수행기관을 확정하고 총 예산 2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사업별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참여 희망하는 단체는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 일체와 단체 회의록 사본 및 사진 등 서류를 갖춰 북구청 여성가족과(062-410-6409)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하면 된다.

북구 관계자는 “사회적인 관심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역할있는 단체와 많은 직장맘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용희기자 kimyh@

Aroma Life
www.aroma-life.co.kr

KCPBA 2016
2011
대한무역진흥공사

‘건강’과 ‘아름다움’을 모두 갖춘 |
맞춤형 기능성 속옷의 명가
아로마라이프

아로마라이프 기능성 속옷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특허를 받은 유니크한 디자인과 일본 도레이社 LYCRA (별단면속각형)사용 및 특수 물질가공(원적외선, 음이온효과)으로 편안한 착용감과 생리적인 불편함을 해결해 주고 건강을 생각한 속옷입니다.

<p>아모리이온</p> <p>브라+슈트+거들 4개국 특허 3단 일체형 슈트</p>	<p>아모리이온 롱바디</p> <p>브라+슈트+거들+레깅스 4개국 특허 4단 일체형 슈트</p>	<p>아실리 바디슈트</p> <p>블랙은사 바디슈트의 은사 레이스 품평회 1등</p>	<p>비비드 아모르</p> <p>러닝+팬츠 2단 일체형 남성용 슈트</p>
--	--	--	--

대표전화 1588-2219